

순천시 VR·AR 제작거점센터 개소 3년...일자리 249개 창출

창업·벤처기업 입주 공간 제공 K-콘텐츠 이끌 융합형 인재 양성 메타버스 33건 탄생 산업화 성과

K-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순천시 VR·AR 제작거점센터가 개소 3년 만에 일자리 249개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

순천시는 '전남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거점센터' (저전동)가 지난 2020년 개소 후 신규 일자리 249개를 창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발굴하고 육성·산업화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은 순천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남도가 지원한다. '지역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AR·VR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과 AR·VR을 융합한 콘텐츠 제작 지원·상용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VR·AR 제작거점센터는 순천과 나주 2곳이 있다.

순천시는 정월 도시 조성하고 함께 디지털 산업 육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메타버스 제작 기업들에는 입주 공간 등 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저전동에 지난 2020년 문을 연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첨단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그동안 VR·AR 제작거점센터에서 탄생한 메타버스는 33건에 달한다. 센터는 창업·벤처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성장하기까지 체계화된 지원을 해왔다.

지난 6월에는 제주도에 있는 메타버스 제작 기업이 순천에 본사를 옮기기도 했다.

순천시는 정주 여건과 기업 환경을 한 번에 아우르는 직주락(職住樂) 지원 체계를 선보였다.

VR·AR 제작거점센터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은 미

래 K-콘텐츠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센터 교육 수요자의 순천 취업률은 60%를 넘겼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메타버스와 VR 등 디지털 특화 콘텐츠는 순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분야"라며 "VR·AR 제작거점센터를 더욱 발전시켜 순전형 창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힘써 원도심 문화콘텐츠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여수 지역아동 창작 공연

14개 지역아동센터 110명

아프리카 음악·예술 선 보여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여수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2023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창작 공연 발표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여수지역아동센터와 14번째 희망에너지교실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는 1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10명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음악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연 '태양을 두드리는 아이들'을 발표했다.

아동들은 공연에 앞서 (주)이리바 소속 서아프리카 현지 유학 전문가 강사와 함께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별 조별 수업, 합동 연습 등을 포함해 6~7회의 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아프리카 문화 및 인식개선, 아프리카 전통 리듬, 음악, 춤 등을 주제로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다양한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했다.

'태양을 두드리는 아이들'은 서아프리카 기니의 상 바랄라 마을을 배경으로 현지 사람들이 악기 연주, 춤 등으로 환영식을 열어주는 이야기로 짜였다.



여수지역 1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10명이 참여한 아프리카 음악 예술을 기반 공연 '태양을 두드리는 아이들' 공연이 끝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아이들은 바디퍼커션, 쟬베, 전통춤 등 4주간 준비한 열정적인 무대를 이어갔으며 관객들도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아이들 공연 끝 무렵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의 초청공연도 펼쳐졌다..

김기웅 GS칼텍스 대외협력 부문장은 "2023년 희망 에너지 교실은 GS칼텍스 예술마루의 축적된

인적, 물적 자원 없이는 수행하기 힘든 희소성 높은 교육을 준비했다"며 "아동들의 동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교육,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프리카 희귀 악기 체험을 통한 입체적인 예술 교육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내년 '한국 강의 날 대회' 곡성서 열린다

익산대회서 다음 개최지 선정

내년 8월께 곡성에서 '23회 한국 강의 날 대회'가 열린다.

곡성군은 지난 17~19일 열린 '22회 한국 강의 날 익산대회'에서 내년 대회 개최지로 곡성군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 유치는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단체 투표를 통해 정했다.

이에 따라 강살리기곡성네트워크(가칭)는 내년 1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학술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는 전국의 강·하천 전문가들과 환경 관련 단체들이 모여 강과 하천의 회복 전략, 생물 다양성 보호·복원에 관한 논의를 한다.

지역별 보존 사례와 세계적 우수 사례도 공유한다. 한국 강의 날 대회는 강과 하천 보호를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환경부·광역자치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민간단체가 주관한다.

강의 날 대회를 준비하는 강살리기곡성네트워크 측은 이번 곡성 대회에서 섬진강 국가습지의 중



지난 19일 막을 내린 '한국 강의 날 익산대회'에서 내년 대회 개최지로 곡성군이 선정돼 대회 깃발을 날리고 있다. <곡성군 제공>

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하천 보전 방안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인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섬진강은 호남 지역의 중요한 생명의 터전이고 그것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이번 '한국 강의 날' 행사를 통해 섬진강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후손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전국 70% 생산 '보성 응치 울벼쌀' 첫 수확

누릉지·과자 등 제품 '보성물' 판매

농산물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보성 응치 울벼쌀'이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다.

보성군은 지난 21일 응치면 중산리 박화영씨 농가가 울벼쌀을 올해 처음 거두면서 본격적인 울벼쌀 수확이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보성 응치 울벼쌀은 지난 2010년 농산물 지리적 표시 17호로 등록됐다.

울벼쌀을 생산하는 보성 농가는 모두 120가구이고, 재배면적은 140ha이다.

보성은 전국 울벼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울벼쌀 특화단지이다.

응치 울벼쌀은 모내기를 다른 지역보다 보름 정도 이른 4월 중순에 시작한다.

농가들은 순수한 쌀만을 완수하기 전에 수확한다. 이후 가마솥 수증기로 쌀을 찐 뒤 햇볕에 건조하는 전통 도정방식을 지키고 있다.

추석 명절이 이룰 때에는 울벼쌀로 만든 밥과 떡을 차례상에 올리기도 했다.

울벼쌀은 향미와 살 빼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군은 울벼쌀 대중화를 위해 '응치 울벼쌀 식품가공 클러스터(협력단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벼쌀을 이용한 누릉지, 과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대도시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 울벼쌀 소비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보성 응치 울벼쌀과 관련된 제품은 보성군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물'(boseongmall.co.kr)에서 살 수 있다.

이형복 보성군 응치면장은 "유독 김었던 장마와 무더위 등 이상 기온 현상과 농가 일손 부족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울벼쌀 생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농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개시

국토부 운용 분야까지 순차 진행

고흥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실증사업 1단계가 지난 21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12월까지 실증사업 1단계를 고흥에서 진행한다.

1단계는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을 검증하고, 교통관리 서비스 및 통신·항법 등 이해관계자 간 역할을 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개발(R&D) 단일분야 실증을 시작으로 통합운용 분야 실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연구개발 단일분야 실증에서는 로비고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플라나 등 국내 5개 컨소시엄(11개 회사)이 각각 개발한 UAM 기술을 검증한다.

통합운용 분야 실증에서는 UAM 기체를 이용해 운항, 교통관리, 배터리포 등 운용하고 비행 단계별 소음을 측정한다.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SKT, KT, 카카오톡모빌리티 등 7개 합작 업체(35개 회사)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1단계 실증을 통과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을 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